

<유숙렬기자의 색안경>“여자도 잘날 수 있다 딸에게 보여주고 싶어”

지난 11일 오후 1시 말레이시아 콰라룸푸르 시내에 소재한 사설클럽 ‘로얄 셀랑고 클럽’에서는 말레이시아변호사 협회와 말레이시아기자단의 비공식 오찬모임이 있었다.

말레이시아전국신문기자연맹 회장 인터뷰 도중 동행제의를 받아 따라간 이 자리에서 말레이시아 영자일간지 ‘뉴 스트레이트타임스’지의 국제부 기자가 내가 한국에서 온 기자라는 것을 알고는 방금 와이어로 들어온 뉴스를 보고왔다며 “너희나라에서 총리와 장관 몇명을 비롯한 개각이 있었다”고 말해줬다.

개각에 국방장관이 포함되었다는 말을 듣고 나는 “서해교전때문에 예상되었던 개각”이라고 대답하며 속으로는 정권말기에 그렇고 그런 개각이려니 했다.

그런데 다음날 서울로 돌아와보니 ‘헌정 사상 첫 여성국무총리’ 아닌가. 각 신문의 1면을 장식한 보도를 보며 처음 든 생각은 기묘한 배신감(?)이었다. 개각뉴스를 전해준 말레이시아기자가 ‘여성총리’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가 남자였던 것은 우연일까?

우리 언론은 신라시대 선덕여왕 등 3명의 여왕이래 1500년만에 처음있는 일이고 중국, 일본 등 동북아권에서는 최초의 일이라고 요란스러웠다.

이유야 어찌됐든 다른 아시아국가들에서는 여성대통령, 여성총리 등 여성국가수반이 많았기 때문에 여성국가지도자의 모습이 낯설지 않다. 그에게는 강력한 대통령집권국가인 한국에서 이름만 2인자에 불과한 여성국무총리는 뉴스도 아니었을 수 있다.

어쨌든 장상총리서리에 대한 논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연일 새로운 논란거리가 터지면서 식지 않고 있다. 여성계에서는 그가 ‘여성이기때문에’ 더 심한 ‘흔들기’를 당한다고 말하는 반면 남성들은 그가 여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에서도 여성표를 의식해 더 강하게 반대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도 여성계의 반발을 우려해 쥐죽은듯이 조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패와 비리로 일룩진 남성 정치판때문에 ‘도덕불감증’에 걸린 탓인지 그가 그동안 술하게 나왔던 역대 남성총리들보다 특별하게 더 자격미달로 느껴지지 않는다.

인터넷 게시판에 오른 한 엄마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는다.

“영국은 대처총리가 있어 여자도 한자리했다고 자랑스러워하지만 여성총리의 치적으로 여성의 권익신장 소식은 들린 적 없다. 여성총리가 있었다는 자긍심뿐인데 그 자긍심으로 영국여자들 파워가 얼마나 업그레이드되었는가. 딸 키우는 이 평범한 아줌마는 여자가 높은 벼슬하는거 딸애한테 한번만이라도 보여주고 싶다. 여자도 저렇게 잘날 수 있다고 그냥 보여주고 싶은 마음뿐이다.”

/유숙렬기자